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외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10호)

○ 2026. 09. 03.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24. 서초구청장(재무과)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18.
- 다. 상 정 일 자 : 2026. 9. 2. ~ 9. 3.(2일)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회 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재정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공간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자 :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재정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재정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재정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현주)
〈 제안설명 내용 〉 : 생략 (재정건설위원회 제안설명 참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민희)

- ▶ 생략 : 재정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획재정국

질>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세목이 다수 확인되는데, 재산세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목뿐만 아니라 변상금·법칙금 등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답>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당초 예측보다 세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사회적 환경이나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일부 세입에도 차이가 발생하였음.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수년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세입을 예측하여 실제 세입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기획예산과】

질> 결산서 I p.184, 창의행정 활성화 사업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한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 미추진 또는 축소된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지?

답> 직원과 국민의 창의제안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민 제안의 상당수가 민원성 제안으로 접수되어 포상금 집행이 저조하였음. 이에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제 제안 실적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음.

질> 결산서 I p.184, 사회조사 통계용역이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용역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 사회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조사 항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음. 기존 73개 조사 항목을 12개 분야 82개 항목으로 재설계하면서 협의기간이 길어져 일부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용역은 2026년 3월 말 완료되었음.

질>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과 건강관리과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에서 본예산 부족으로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별 수요를 예측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 향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실적과 사업수요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재무과】

질> 결산서 I p.185, 결산 및 회계업무 효율적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상반기 자금 부족으로 약 249억원을 일시차입하고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대규모 자금 부족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금고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한 사항임. 상반기 신속집행 등으로 자금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주요 재원인 재산세는 주로 7월과 9월에 유입되고 전년도 이월액도 감소하면서 재산세 유입 전까지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음. 이에 구금고에서 249억원을 일시차입하여 시설공사비, 인건비 등 필요한 지출에 사용한 것임.

질> 재산세 수입 시기와 상반기 재정수요는 매년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도 일시차입으로 1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은 자금수급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와 향후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 최근 가용재원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비·인건비·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지급시기를 임의로 늦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의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자금수급계획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금융기관 차입 규모와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세무관리과】

질> 세입금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에 ‘무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차이는 무엇인지?

답> 미수납액은 부과된 세입 중 납부되지 않은 금액으로 체납액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무재산·폐업·행방불명 등으로 현재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리보류하고 있음. 정리보류 후에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고 있음.

■ 공간혁신국

【교통행정과】

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큰데,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답> 세입예산은 최근 3개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법령 개정으로 인상되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측면도 있음. 향후에는 최근 3개년도 결산액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의 결산 예정액 등을 함께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질> 결산서 I p.189,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약 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실제 신청수요 감소나 교통안전지도사 인력 확보 등에 따른 것인지와 지원받지 못한 학교나 아동은 없었는지?

답>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11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 42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1개 학교가 신청을 포기하고 지도사 수요도 32명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학교 측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사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발생한 사항은 아님. 향후에도 사전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질> 결산서 I p.189, 교통소통대책-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사업은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산 전용과 예비비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 추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답> 2025년도에는 시간당 보상금 2만원을 기준으로 주요 혼잡구간 21개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였으며, 당초 모범운전자의 연령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혹서기·혹한기에는 계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재건축 지역 및 도로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기간에도 계도활동이 필요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10월경 예산이 소진되었음. 이에 추경 편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 내 가용예산을 전용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도시계획과】

질> 결산서 I p.191,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당초 별도 용역으로 편성한 이후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 법원·검찰청 일대 최고고도지구 해제 이후 별도의 높이계획 정비가 필요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항을 서초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용역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별도 높이계획 용역은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 결산서 I p.191, 서초구청사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25년 9월 예비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대부분을 사고이월하였는데, 과업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고이월이 사전에 예상된 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와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답> 구청사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서울시 역시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음. 현재 지하 터미널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방안까지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용역과도 연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공공인프라과】

질> 결산서 I p.193,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KDI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예산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답> KDI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전 기획예산처 및 KDI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제안서가 민자사업 요건에 적합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2026년 6월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음. 이에 당초 연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

질> 기부채납 시설이 증가할 경우 향후 운영·관리비 등 고정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시설물 위주의 기부채납보다 기금 등 다른 방식의 공공기여를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 기부채납 시설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초구 전체의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적정 규모와 용도를 검토하고 있음.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기보다 기금 등 다른 방식의 공공기여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비와 행정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채납 결정 심의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인프라과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겠음.

질> 결산서 I p.194, 상습정체지역 해소-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은 2025년 11월 예비비를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나 용역비 전액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답> 우면동 주민들의 선바위역 경유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주민설명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선바위역 경유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예비비를 확보한 후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연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이후 2026년 3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음.

■ 도시관리국

【건축과】

질> 결산서 I p.201~202, 건축 인허가 처리 및 2025년 반지하주택 피난 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은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특별검사원 수당 등의 집행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반지하주택 피난 시설 설치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총 지원대상 55 가구를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설치 동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동의를 받은 가구가 3가구에 그쳐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부동산정보과】

질> 결산서 I p.206,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사업은 임차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약 40%에 그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답>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임차보증금 기준을 1억원으로 운영하다 2025년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음. 그러나 서초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비중이 약 10% 이하로 낮아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실제 임대료 수준과 지원기준 간 괴리가 있는 상황임.

질> 결산서 I p.206, 서초부동산거래 분석 등 사업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이 최근 3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실효성이 낮은 포상금 예산을 계속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답>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어 포상금 집행실적이 없었음.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질> 결산서 I p.208, 재난예방 및 관리 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약 3억 9천만원 중 약 1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예산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답> 내진성능평가 대상 16개소 중 1개 시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음.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당초 계획보다 설치실적이 적었으나 현재 주민 수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어 해당 사업은 종결하였으며, 향후 재난관리 사업은 편성된 예산에 맞춰 해당 연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가로행정과】

질> 지중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설계변경이나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하매설물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답>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통신사가 공사 주체로, 사업 초기에는 기존 사업실적과 개략적인 현장 여건을 토대로 산정한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후 한전 등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기기 위치, 관로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면서 당초 개략공사비와 확정공사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공사 지연 자체로 인해 별도의 부대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는 개략공사비 산정과 사업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변동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질> 결산서 I p.210, 강남대로27길 지중화 사업은 한전 사업승인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승인 가능성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답> 해당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 한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한전 내부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2026년 3월에야 사업승인이 통보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음. 통상적으로 승인 신청 전에 한전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향후에는 예산 편성 후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조속히 요청하는 등 사업 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음.

【도로과】

질> 결산서 I p.213, 방배카페골목 특색있는 보행로 조성 관련 용역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는데, 추경 편성 당시 사업기간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답> 방배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해 추경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음. 이후 2026년 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용역은 사업기간과 후속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예산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주차관리과】

질>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감소로 주민 자부담이 증가하면서 당초 신청가구 중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 그린파킹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대5로 부담하는 정률보조사업으로, 당초 1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면서 주민 자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일부 신청가구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질>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당액이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결손처분 전 체납자의 재산이나 압류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지?

답>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재산 존재 여부 등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음. 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끝까지 징수하도록 관리하겠음.

■ 보 건 소

【건강정책과】

질> 결산서Ⅱ p.40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성과지표 달성률이 2024년 92%에서 2025년 76%로 감소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3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단속 실적이 저조해진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답>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망과 세외수입망 등 관련 전산망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에는 계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음. 현재 관련 전산망은 정상화되었으며, 향후 단속반에 대한 교육과 회의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질> 결산서Ⅰ p.219, 내곡보건지소 건립 관련 사업비 6억원이 전액 반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내곡지역 보건서비스 확충계획은 있는지?

답> 신원동 225번지에 계획된 복합복지타운 1층에 내곡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음. 이후 공공기여시설 등을 활용

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필요한 면적 등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도 보건지소 등 내곡지역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약 99%에 달함에도 결산상 불용률이 약 38%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실제 집행실적과 결산상 불용률 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 상급기관의 확정내시가 당초보다 감액되면서 결산상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실제로는 관내 고위험 임신부 99명에게 지원하여 사업 집행률은 약 99% 수준이었음. 확정내시 변경으로 남은 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른 모자보건사업에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질> 결산서 I p.288,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예산 부족이 발생한 주요 사유와 지원비 지급 방식은 어떠한지?

답> 2023년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출생아 수가 2,035명까지 늘어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이 정책적으로 중단되면서 서초형 사업의 지출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른 미숙아 출생 증가로 지원 수요가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음. 지원비는 대상자의 비용 청구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다음 연도로 미루지 않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음.

【의료지원과】

질> 결산서 I p.288, 2025년 설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약국 지원을 위해 예비비 5,345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명절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 명절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안내하는 업무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운영지원금은 2024년 추석과 2025년 설 연휴에 한해 지급하였음. 이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과 응급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현재는 전공의 복귀 등 여건이 변화하여 향후 명절에는 별도의 운영지원금 없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현황을 파악하여 안내할 예정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승인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